

영국,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일반 접종 시작

전국 병원 백신 도착·치료소 준비

80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접종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이 임박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는 7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앞두고 전국의 각급 병원에 화이자-바이오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이 특수 상자에 담겨 속속 도착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의 공급은 많은 비용과 특수장비, 인력이 소요되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운반 시에는 드라이아이스로 채운 특수 박스를 이용해야 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 50개 병원에서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NHS 직원들은 지난 주말 접종 대상자를 분류하고 면역 반응 치료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접종을 마친 노인들은 면역반응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병원



영국 런던 남부 크로이던 자치구의 보건부서 소속 의약 담당 직원이 5일(현지시간) 크로이던 대학 병원에서 화이자-바이오테크 백신 첫 물량을 수령해 보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머문 뒤 귀가할 것이라고 NHS 측은 설명했다. 첫 예방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은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요양원 직원과 보건의료 종사자

들은 별도의 예약을 통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앞으로 한 주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접종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까지 2000만명에게 면역을 생성시킬 수 있는 분량의 화이자 백신 4000만 도즈(1회 접종분)를 구매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 80만 도즈가 이번 주 안으로 영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올해 말까지 총 400만 도즈의 배수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생명공학기업 바이오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지난 2일 세계에서 최초로 사용승인을 하고서 대량 접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비롯해 유명 제약사들이 앞다퉀 개발한 백신들의 사용 승인을 앞두고거나 검토 중인 나라들이 영국을 숨겨주지 않고 있다.

NHS 잉글랜드 의료 책임자인 스티븐 포이스 교수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팬데믹 종식이 가시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싸움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며 백신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60〉 사천택

사천택(史天澤, 1202-1275)의 자는 윤보(潤甫)로 하북성 영청 출신이다. 몽고 제국에 투항한 한족으로 쿠빌라이 칸을 도와 대원 제국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금나라 호족 사병직(史秉直)의 셋째 아들이다. 1213년 금나라를 침공한 몽고군 사령관 무하리에게 집안이 투항했다. 하북성 진정(眞定)에 근거하며 유력 한인세후가 되었다. 징기스칸부 터 현종 몽케 칸까지 대대로 섬겼다. 사천택 영지가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가문의 관할에 들어가면서 툴루이 일족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몽케가 동생인 쿠빌라이를 막남한지(曷南荻) 대총독으로 임명했다. 대중국정벌의 총책임자로 기용한 것이다. 몽케는 몽고의

에 나섰다. 남송은 명장 여문환을 수비 사령관으로 투입했다. 양양 정벌에 거의 5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양양 주변의 변성을 정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문환은 임안의 남송 조정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재상 가사도는 이를 묵살했다. 양양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남송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양양 패배 후 가사도가 직접 군대를 지휘했는데 사천택은 쿠빌라이에게 바란을 총사령관으로 기용토록 건의했다. 바란과 같은 유력 한인세후가 되었다. 징기스칸부 터 현종 몽케 칸까지 대대로 섬겼다. 사천택 영지가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가문의 관할에 들어가면서 툴루이 일족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몽케가 동생인 쿠빌라이를 막남한지(曷南荻) 대총독으로 임명했다. 대중국정벌의 총책임자로 기용한 것이다. 몽케는 몽고의 1275년 사망했다.

몽고군에 투항, 대원제국 수립 큰 공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몽고 지상주의자였다. 쿠빌라이는 보다 유연한 세계관을 가지고 농경 중심의 중국사회를 수용했다. 쿠빌라이를 견제하기 위해 몽케는 감시단을 보내 규칙위반, 탈세, 범법 행위 등을 적발했다. 다수의 관료를 처형했다. 사천택은 툴루이 가문과의 인연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1259년 몽케가 대송 정벌전을 지휘하던 중 사천성 조어산에서 병사했다. 쿠빌라이와 몽고에 남아있던 동생 아리크부케간 후계 경쟁이 불가피했다. 쿠빌라이는 1260년 쿠빌타이를 열어 칸이 되었지만 앞잡이는 험난했다. 산둥 지방을 다스리던 이단(李端)이 반란을 일으켰다. 산둥의 소금과 구리가 전쟁 재원이 되었다. 몽고에 인질로 가있던 아들 이연간이 탈출하자 쿠빌라이에게 도전을 내밀었다. 몽고군을 살육하고 연주와 행주를 남송에게 넘겼다. 사천택은 쿠빌라이의 명을 받아 1262년 봄 제남 주변에서 이단의 군대를 공격해 사천형 이상을 죽였다. 제남에 있던 이단의 근거지를 포위하고 무기과 식량 공급을 차단했다. 8월에 이단은 물에 빠져 죽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몽고군에 잡혀 처형되었다.

남송 공격이 시작되었다. 주요 공격 대상은 군사요충지 양양이었다. 사천택은 한인 유정, 위구르인 아릭 카야, 몽고 장군 아주 등을 거느리고 포위전

사천택 가문은 한인세후의 일원으로 몽고의 북중국 경영에 공헌했다. 쿠빌라이는 신임하는 사천택과 요추에게 몽고의 사법체계를 정비토록 명했다. 금나라의 제도를 사용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중국 백성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하였다. 1264년 법령이 마련되었지만 1271년 대원 제국 성립때까지 금나라 법규가 우선 적용되었다. 쿠빌라이에게 효율적인 국가 경영을 위해 한인 유학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를 몽고의 상도에서 현 베이징인 대도(大都)로 천도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었다. 유병충이 새 수도 건설의 주역이 되었다. 늘어나는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쿠빌라이는 생목인인 아후마드를 기용했다. 아후마드는 무리한 증세 정책을 밀어부쳤다. 아들 마수드를 상업의 중심지인 항주의 다루가치로 임명했다. 사천택과 염희동 등 한인 관료들은 추가 증세가 중국 신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아후마드가 부당히 득을 취하고 있으며 반역의 징후까지 보인다고 공격했다. 아후마드는 유병충이 1274년 사천택이 1275년 요추가 1279년 병사하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사천택은 원나라의 훈신(勳臣)으로서 재상에 올라 대원 제국 착근에 큰 공을 세웠다.



불꽃만 6m...세계 최대 크리스마스 촛불 독일 중부 헤센주 쉐리츠에서 6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촛불이 밝혀 빛나고 있다. 이 촛불은 붉은 천을 두른 석탑 위에 110개의 전구를 설치해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꾸며졌다. 탑 부분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42m이며 불꽃 높이만 6m다. /연합뉴스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구상 어민 반발 확산

“삼중수소(트리튬)를 바다에 흘려보내면 생선을 팔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주민을 상대로 6일 개최한 오염수 처리 관련 설명회에 참가한 한 어민은 오염수 방류가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이처럼 반발했다고 현지 민영방송 후쿠시마TV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일정 수준으로 정화한 후 바다에 방출하는 구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자국 어민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오쿠다 수지 경제산업성 원자력발전소 사고수습대응실장은 일본 정부가 방출을 추진하는 오염수의 방사선량에 대해 “용기에 넣고 손에 들고 있어도 건강에 영향을 없을 정도로 저선량”이라고 전날 설명회에서 말했다. 하지만 참석한 어민들은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생선이 팔리지 않게 된다”, “왜 후쿠시마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전제냐”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주입한 결과 등으로 하루에 약 140t(톤)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한다. /연합뉴스

뉴턴의 미발행 노트

200년만에 세상에 나왔다

성경 비밀 풀려는 노력 담겨

소더비 경매 수억원 거래될 듯

만유인력의 원리를 제시한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노트가 경매에 나와 수억 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6일(현지시간) 이집트 피라미드와 성경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했던 뉴턴의 미발행 노트가 소더비 경매에 나와 수십만 파운드(수억 원)에 팔릴 것 같다고 보도했다. 경매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680년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노트에는 피라미드 속에 숨겨진 성경의 비밀을 풀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시간을 알아내려던 뉴턴의 연구 노력이 담겨있다. 뉴턴은 또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려내는데 힘을 쏟았다. 그는 이집트인들이 지구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피라미드를 통해 지구 둘레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뉴턴 사후 200년 만에 발견됐던 이 노트는 그의 애완견 다이어몬드가 초를 넘어뜨려 주변부가 불에 탄 상태다.

소더비 관계자는 “뉴턴의 노트는 피라미드와 세상의 비밀을 풀려 했던 그의 노력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이라면서 “노트에는 솔로몬 신전의 크기를 측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턴은 기독교를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성서에 나온 세상의 종말 시점을 계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피라미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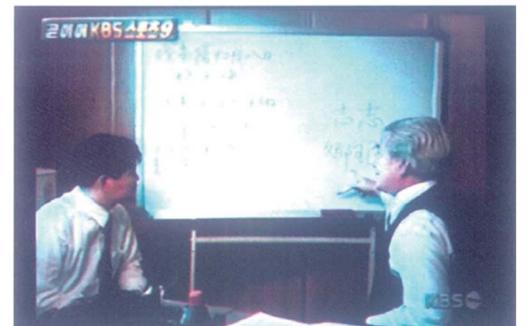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